

駐韓外國인의 한국탐험

한국을 다시 생각해 한 씹쓰레한 관료주의

외국인 기분은 생각지 않는 출입국 관리직원

나와 한국의 첫 인연은 아무래도 대학시절에 맺어진 것 같다. 모스크바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대학에서 6년 동안 공부하며 한국을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4년간 나는 북한에서 기자생활을 했고 한국을 마음 한구석에 두었던 게 사실이다. 막연히 아름다운 선진국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은 의외로 빨리 실현되었다. 91년 11월 서울특파원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이다. 그날 내가 받은 첫인상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내 곁에 다가와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은 밝히지도 않은 채 『한국에는 처음인가』 『북한에서는 언제 있었느냐』 『앞으로 얼마간 머무를 예정인가』 등을 난데없이 물어댔다.

나는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사람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주었다. 그런데



이완 자하르첸코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서울특파원〉

- 61년 러시아 오르스크 출생
- 모스크바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대학 졸업
- 85년 舊소련 타스통신 입사
- 87~91년 타스통신 평양특파원
- 91~ 이타르타스통신 서울특파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몇 사람이 와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었다.

별로 즐겁지 않은 기분으로 출입국을 지나는데 이번에는 관리들이 여권을 보더니 30분이나 어디론가 확인전화를 했다. 그리고는 여권을 내밀며 『한 달 안에 반드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내

여권은 사실 정부차원에서 합의된 것이었고 장기체류도 허락된 상태였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련의 행동들을 차츰 관료주의로 이해하게 되었다.

지난 연말 나는 서울에서 거주지를 옮겼다. 알다시피 이사는 항상 아주 바쁜 일이다. 더욱이 바로 그때 엘친 대통령이 訪韓하는 바람에 엮힌 데 덮친 격이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나 혼자뿐이어서 취재하고 러시아로 원고를 보내느라 그야말로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그때서야 알게 된 내용이지만 한국에서 는 거주지를 바꾸면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14일 안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기일을 어기면 물론 벌금을 낸다.

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전입신고까지는 했는데 바쁜 일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

나는 나중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한국과 러시아, 두나라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데 더없이 중요한 엘친 대통령의 방문취재로 어려웠다는 설명은 그들에게는 도무지 통하지 않았다. 관리들은 더이상 이유를 들을 시간도 없다는 듯 가족 1인당 벌금 5만원씩을 내라며 불법체류자와 함께 조사를 벌였다.

어색하지만 한 한국의 거주자 등록제

나는 그런 한국관리들의 태도를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거주자의 등록제가 엄격히 실시된다는 게 왠지 어색하기만 하다. 더욱이 14일이라는 시한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이런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은 옛 소련에도 없었다.

원래 융통성없는 관료주의자들은 수많은 규제와 法을 만들어왔다. 그렇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시민들은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교통법규만 예를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하루에도 몇번씩 교통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교통이 복잡해져 길이 막히면 운전사는 교통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지 않고는 차를 앞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 말하자면 법규만 만든다고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도 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다른 법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어쨌거나 늦은 전입신고로 벌금을 낸 후 나는 관리에게 외국인에 관한 법조문을 보자고 요구했다. 관리자의 대답은 그 법은 비공개라는 것이었다. 생각해보자. 도대체 관련법을 모르는 채 어떻게 그 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요즘 한국엔 개혁바람이 불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그 가운데는 자동응답전화서비스도 들어 있다. 전화번호만 누르면 외국인의 체류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이디어는 만점이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한국말 한가지밖에 안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들 때는 북한을 떠올린다. 북한은 물론 문제가 많은 사회다. 그러나 적어도 외국인 등록에 관해서 만큼은 별 어려움이 없다. 외국특파원에 대해서도 물론 서울과는 다르다. 북한에서는 외신기자를 포함한 모든 주재 외국인들은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출입국 절차와 국내체류로는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

나 역시 87년부터 91년까지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 그런 문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은 없다. 이제 한번쯤 한국의 관리들도 외국인들, 더욱이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외신기자들에게 관료주의 만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7

